



J. Thompson



Brigham Young 1865



1967年 10月 4日 公報부등록 라-932

성도의 벗 7
1969



영감의 멧세지

프랭크린 디. 리차드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며 특징적인 점을 든다면 역시 교회의 모든 일이 보수를 받는 성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평회원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우리 교회를 가장 인상깊게 생각하게 된 것은 연령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봉사의 기회를 균등하게 베풀어 준다는 점이라는 이야기를 비회원인 친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입니까?

사실, 교회란 하나님 자녀의 성장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는 매개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충분히 주어, 흥미 있고 유익한 계획에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과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은 회원에게 주어지는 훌륭한 기회임과 동시에 책임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교회 발전은 곧 지도자의 발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부, 스테이크, 와드, 신전 정원회, 보조 조직, 기타 교회 조직 및 활동은 물론 교회를 운영하는 지도자 여러분의 발전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봉사의 기회가 지나치게 많고 또 역시 재능을 개발할 기회가 너무나 많은 관계로 도에 넘치는 회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회생이 회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축복을 결과로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라고 당부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의 발전을 도모하여 결국은 완전이란 목적지에 도달할 경험을 쌓게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이웃과 함께 나누거나 주는 정신으로 충만할 때 성장이나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화평, 행복, 희열, 만족을 만끽하게 됩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9년 7월 1일

(통권 제48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인쇄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제5권 제7호

순서

1969년 7월호

권두언 : 네개의 이정표 데이비드 오. 백케이.....	1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 로웰 엘. 베논.....	3
물론 이야기 도일 엘. 그린.....	6
영국에서의 회복된 복음.....	11
상호 부조회 : 금식과 기도 마리안 씨. 샤프.....	14
어린이 성도의 벗 : 그림대회.....	15
사자처럼 용감하게 루우린 지. 윌킨슨·마저리 캐논.....	16
무엇일까요? 마라 케이.....	18
주일학교 : 성경의 승리 주웰 비. 엘킹톤.....	19
관리감독단 페이지 : 회개 존 에이치. 반덴버그.....	21
청소년편 : 간직하고 싶은 추억 다섯가지.....	23
열 사람의 힘 벤 에프. 몰튼슨.....	24
달 여행과 만민에게 보내는 말씀 지. 호머 더함.....	26
복음과 권위에 대한 존경 스티링 알. 프로보스토.....	27
선교부장 멧세지 : 말일성도란? 서 현보.....	29
지방부장 멧세지 : 주님의 성품 배 영천.....	30
내외소식.....	31
진리의 말씀 : 행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으니 리차드 엘. 이반스.....	뒷표지

표지 설명 : 아무래도 7월은 상속의 달이다. 여러 나라가 이달에 독립 기념일을 맞는다 하면 우리의 선조가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것도 역시 7월 하순이었으니 말이다.

제리 톰슨은 선조가 우리에게 전해 주신 유산을 그림에 담았다 : 오하이오주 : 커트랜드 은행 지폐, 일리노이주 : 나부 군대 계급장과 나부군대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찼던 칼. 예언자가 순교당할시 폭도의 총탄을 막아준 존 테일러 대관장님의 시계. 커메지 감옥의 열쇠. 초기의 솔트레이크 계곡 갈매기. 귀뜨라미와 부리감 영 대관장님의 은판으로 뜬 사진.

부모의 책임

우리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더를 가나 심각한 동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충애를 받던 방법이나 형식은 곧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이렇게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동요 속에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인 가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란 성스러운 단위를 위에 말씀드린 심각한 위협에서 구제하는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말일성도 여러분에게 걸려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가족 관계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일성도의 가정에는 일시적이며 잠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더구나 말일성도 가정에 있어서의 가족 관계가 얼마를 지나면 허물어진다는가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대 관계는 영원한 것으로 합당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말일성도에 있어서의 가정은 참다운 의미로 사회의 첫째가는 단위이며,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님이 되는 것에 바로 다음가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한결같아서 그들이 성장하여 국가나 또는 더 큰 사회로 등장할 때 이상적인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완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자격의 소유자로 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며 구속주에 대한 신앙이나 교회의 조직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추게 하는 비결은 역시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마음 속에 이러한 원리를 심어주어야 할 책임을 부모에게 부여 하셨습니다. 젊은이의 향상과 인도를 위한 주일학교, 상향회, 초등학교, 세미나리 등 여러가지가 젊은이의 생활에 들어있을 때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가정에서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에는 비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

자신에게 참된 인간은 절대로 진리를 거역하여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내부에는 성스러운 무엇이 있는 법입니다. 내부의 성스러운 그 무엇에 진실한 사람은, 주님과 이웃에 진실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나약하여 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빛을 떠날 수도 있으며 성스러운 무엇을 외면하여 제멋대로 행할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화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악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언하여 왔습니다. 인간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이 큰 명분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마음에서 울어나는 봉사이기 보다는 길로만 그럴듯한 봉사로 이웃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우리들 내부의 성스러운 무엇에, 우리가 받은 진리에 진실해야겠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네 개의 이 정 표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악을 둘러싸인 상태로 방치해 두거나 젊은이를 유혹하여 불행과 비참의 암흑으로 몰아넣는 것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행해 보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 중에 들어가는 경우라 하여도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을 감동케 한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양심에 진실한 사람이었음을 상기해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바울이 그러했으며 그 옛날의 사도가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뉴욕주, 팔마이라의 유능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린 요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맹렬히 공박하자 가슴에서 울어나는 주 예수에 대한 간증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 : 25)

요셉 스미스는 끝까지 자기의 간증에 진실하였습니다. 일리노이주 카메지 감옥 근처에 이르자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을 둘러보며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던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던지 털끝 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 (교회 정사 제6권 555페이지. 교성 135 : 4)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간증과 이웃에 다 같이 진실하였습니다. 성스러운 인간성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이는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 말일성도가 갖추어야 할 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름으로 봉사할 때에나 그분이 가졌던 그 진리로 교회의 젊은이를 인도할 때에 꼭 필요한 인간성입니다. 모든 종류의 잘못이나 악과 싸울 때 필요한 진리입니다.

“선한 용기의 소유자가 되라”

우리의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용기는 우리가 활동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이성을 되찾아야 할 시기이며, 우리들이 현재 앓고 있는 병의 만능약이나 되는 것처럼 날뛰는, 바람부는 대로 한다는 이론에 현혹되어 정박소를 이탈하는 사례는 빗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는 도덕적인 표준을 지키기 위하여 용기있는 젊은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는 참다운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집약할 수 있을 때 영웅은 태어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구하는 영웅은 매일 듣는 전경터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영웅을 가정의 청소년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젊은이의 개성이며 삶의 근원을 쪼먹는 대상에 분명히 일어나서 대항할 수 있는 젊은 남녀가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때 보다도 도덕적인 영웅이 필요한 시기이다.” 라고 마크 홉킨슨 (미국의 철학자)는 갈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학을 통하여 그러한 영웅이 배출될 길을 닦고 준비하도록 하셨다. 철로를 놓고 줄을 느리고 대양을 가로지른 다리를 놓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장본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누가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풍조를 고취시켜 보다 높은 삶의 형태를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는 갈릴레오나 페러디나 그밖의 과학자의 발견이 아니라 도덕적인, 영적인 가치의 실재를 믿는 신념이다”고 위대한 과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도덕적이며 영적인 가치를 지킴에 있어 용기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 16 : 26)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되시는 분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매, 그 분은 전능하신 분임은 믿는 태도로 모든 어려움을 용기로 맞서야 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시편 31 : 24)

자문하여 보자

가만히 보면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협조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느 쪽에 속하는가?”를 자문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 직책에 부름을 받습니다. 신전 지도자나 보조 조직의 역원이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 많은 사람이 “예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호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남의 결점이나 찾아내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불평의 명수가 있습니다. “못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동기를 잘못 판단하고 이해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음성에 기꺼이 따르니 파이가 되지 못하고 레이만이나 레뮤엘이 되고는 맵니다. 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니파이일서 17 : 17)

우리들 모두는 자신을 돌아보며 지도자가 보여주는 모범에 진실하여야 합니다. “지도자의 말에 반대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권회, 보조 조직 역원의 의견에 불평이나 늘어놓는 태도는 우리 말일성도 가정에 스며들어서는 안될 독소입니다. 지도자는 왜 부름을 받습니까? 자신을 위하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내에서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름은 어떤 사람을, 어떤 부류를, 넓게는 인류 전체를 축복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대관장으로부터 최근에 개종한 회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누구나 인류 사이의 의로움, 자비, 덕성을 높이고, 타인을 축복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

로웰 엘. 베논 박사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

(교리와 성약 88편 1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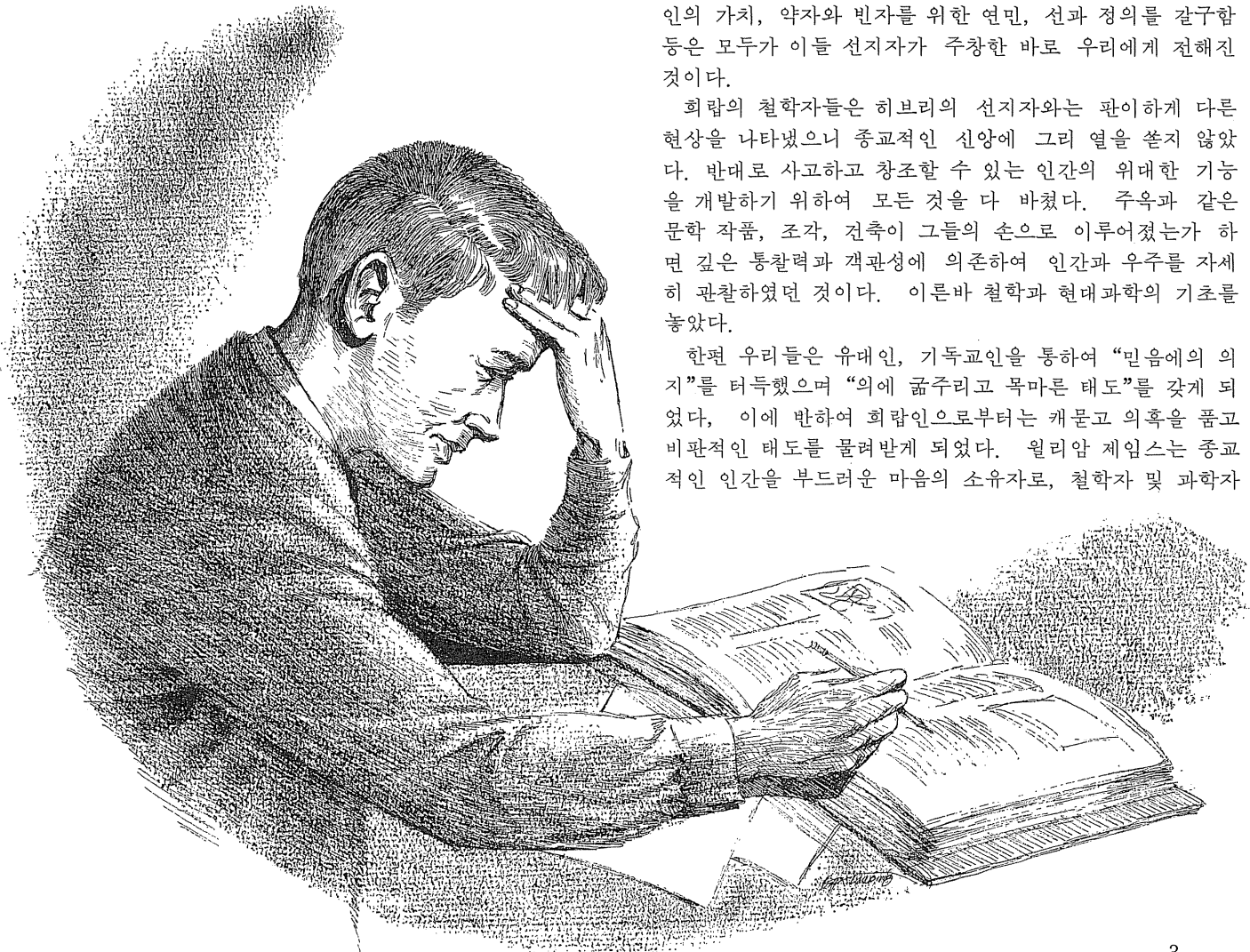
● 용기에 가득찬 엘리야는 갈멜산에 우뚝 서 고대 이스라엘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쳤다. “너희가 어느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찌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열왕기상 18:21) 내용은 간단하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의 양자택일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선택은 상당히 다르다고 하겠다. 풍요로우며 또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이로 가득찬 생을 즐기고 있으나 동시에 무한히 복잡한가하면 불확실하며 변화의 급류 속에 살고 있다 하겠다. 부모의 신앙의 그늘 밑에 성장하여 기성세대의 변화무쌍한 가치관이나 지식의 독존을 마주해야 하는 말일성도의 젊은이들은 적당한 인생의 철학을 구축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생의 지침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유대 기독교 신앙과 회람의 이성, 이들 위대한 유산은 곧 서부 문명의 생활과 사고를 지배해 온 뿌리 구실을 해 왔다. 히브리 선지자로부터, 예수로부터, 바울로부터 인간관계 속에 정의와 자비를 요구하시는 진리의 계시자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웠다. 이미 조직된 법률을 보드라도, 예를 들면 법률을 기초로 한 정부, 민주주의, 개인의 가치, 약자와 빈자를 위한 연민, 선과 정의를 갈구함 등은 모두가 이들 선지자가 주창한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회람의 철학자들은 히브리의 선지자와는 판이하게 다른 현상을 나타냈으니 종교적인 신앙에 그리 열을 쏟지 않았다. 반대로 사고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한 기능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주옥과 같은 문학 작품, 조각, 건축이 그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깊은 통찰력과 객관성에 의존하여 인간과 우주를 자세히 관찰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철학과 현대과학의 기초를 놓았다.

한편 우리들은 유대인, 기독교인을 통하여 “믿음에의 의지”를 터득했으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회람인으로부터는 कै묻고 의혹을 품고 비판적인 태도를 물려받게 되었다.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적인 인간을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로, 철학자 및 과학자



를 거친 마음의 소유자로 부르고 있다. 말일성도의 젊은 청소년은 이 둘을 다 함께 갖기를 바란다. 물론 용이하게 달성할 문제로는 생각지 않는다.

회복의 과정에는 신앙과 이성의 놀라울만한 결합이 생긴다. 회복된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신앙을 초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게 되며, 왜 성경이나 선지자가 의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재인식하여 생활의 지표로 삼도록 인도한다. 또 사실이 그러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에 덧붙여 회랍안의 특성이었던 이성적인 사고와 흡사한 무엇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회복된 복음이 깊숙한 냉장고 속에 넣어두었던 차거운 과일처럼 정연하고 완전한 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이는 깊은 산골샘에서 샘솟는 차가운 물과도 같다고 하겠다. 종교는 예술이나 과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간절할 추구하고 필요의 부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속적인 계시라고 하겠다.

요셉 스미스 또한 지식이 다만 경전과 선지자를 통하여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 (교성 58 : 27—28) 말일성도가 최초로 지은 건물은 경배의 집임과 동시에 학문의 전당이었다. 이곳에서는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익히며 훌륭한 책을 통하여 지혜를 굳혔던 것이다. 그들이 다룬 과제는 신학은 물론 천문학, 지질학, 역사, 정치학, 시사, 언어 등이었다. (교성 88편)

현대의 계시는 사고의 여지를 만들어 주었으며 또한 사고를 적극 요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라.” “모든 왕국에는 저마다 하나의 율법이 있다.”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다.”는 위대한 말씀에 익숙한 말일성도의 청소년은 집에 있으나 외국에 있으나를 막론하고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회복된 복음을 신앙과 이성을 바탕으로 다룬다는 점은 인간의 관심이나 필요성에로 일치하여 비길데 없는 장점같이 보이거나 교회내의 사상의 갈등 또한 유발한다. 신앙으로 학문을 연구하라는 가르침을 유년 시절부터 받아온 젊은이 중에는 대학 생활에 접어들면서 유대 기독교적인 말일성도 신앙의 바탕에 위협을 느낄만큼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자행해 보려는 사람이 있다. 리스 대학, 부리감 영 대학, 종교 학원, 쎄미나리 등은 그들이 세상적인 학문을 탐구하면서도 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신앙과 이성의 세계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느냐 혹은 못시키느냐는 결국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간직하여 신앙에 세상적인 사고 방식에 의한 이성적인 과정이 아무 마찰도 없이 적응될 수 없다고 하여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각자의 언어, 정신, 관심사가 다른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서로 별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생각케 한다. 근래에 습득한 이성적인 지식에 현혹되어 종교를 버리는 말일성도의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값진 신앙을 잃을까 두려워 학문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신앙과 이성을 함께 감사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 갈등도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여 보며 또한 보다 차원 높은 것의 탐구를 전제로 한다면

필요한 사항이다.

회복된 복음의 본질과 정신을 이해하기에 이른 말일성도는 자신의 인생관에 신앙과 이성을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종교는 믿는 마음과 탐구하는 정신에 의 존경을 가르치고 있다. 인간이 한낱 우주 공간을 무기력하게 이리 저리 배회하는 일시적이며 우연한 존재라고 규정할 때 필연적으로 신앙이거나 아니면 절망을 택하게 된다. 창조적인 생활을 사랑하는 길은 오로지 신앙을 통하여서만 이룩될 수 있다. 더구나 정신적인면에서 자신의 특성 중의 특성이라 할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인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로 그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다. 삶 그 자체는 마음과 정신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에 순응하고 적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여기에 몇가지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앙과 이성의 차이점을 인정하여야 하며 양자가 동일한 인생관을 표방한다고 기대하여서는 안된다.

결론을 예로 들어보면, 남자와 여자가 생각, 느낌, 행동이 동일하기를 희망한다면 큰 잘못이다. 모두 다 인간인 본분이 다른 것이다. 고로 서로의 같은 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충하여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철학이나 과학이 그러하며 종교 또한 그렇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명확하여 진다.

지질학은 지구에 관한 연구이다. 지구의 형성과 역사에 관하여 정확하고, 조직적인 실험에 입각하여 인과 관계를 알기쉽게 연구하는 학문이다. 수많은 과학 서적과 기사가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창조는 계속되는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종교도 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보는 각도가 과학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경전을 보아도 지구의 창조에 대하여는 그리 만족할 만한 설명이 없다. 좋은 예로 침식의 원인 및 결과에 관한 구절은 찾을 길이 없다. 창세기에 나타난 지구의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물이 드러나라”하신 다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창세기 1장 참조)모세서 1장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창조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설명하고 있다. “수없는 세계”를 천문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또는 지질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인간의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오기 위함”이라는 말로 창조의 성스러운 목적을 믿는 신앙을 우선으로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에 관한 경전 구절은 언제나 종교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즉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그의 율법을 경의하며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편 8편이나 23편,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교리와 성약 88편을 읽어 보면 위에 언급한 종교적인 목적을 알게 된다. 과학은 자연을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언어로 묘사한다.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인생의 참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상적이며, 영감적이며 보다 시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담배는 몸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는 지혜의 말씀은 그 속

에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이 과학적인 언어로 묘사된 것은, 면밀한 과학적인 실험으로 명확하게 된 것도 아닌 주님이 직접 주신 간단한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종교적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의 대부분은 과학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진 것이다. 그들은 교과서에 나타난 구체적이며 자세한 언어와는 거리가 먼 신앙과 도덕에 충실한 언어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경전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또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인 책임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다. 신앙, 도덕, 형제애를 다룬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질학, 동물학을, 시편에서 천문학을, 교리와 성약에서 물리학을, 요나서에서 심리학을 유출하려 한다면 잘못이다.

종교라고 하여 과학, 철학, 이성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초경험적이며 초이성적이다. 이는 과학적인 지식을 초월하며, 전체적인 존재 속에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 및 목적을 규명하여 줌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순수한 과학적인 인생관에 입각하여 인간은 “영원이란 벼랑에 달려 있는 미소량의 무”에 불과한 존재라고 한 식물학자의 말에 깊이 감동되어 자기를 잃지 않게 한다. 인간을 도와 어디에 있으나 안정된 상태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2. 겸손하라는 점에 있어서는 과학이나 종교가 마찬가지로다

미지의 것이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은 역시 현세에 집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과학의 위대한 천재로 너무나 잘 알려진 아이작 뉴턴 경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내 자신이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대양의 진리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하여 때때로 손에 잡히는 매끄러운 조각돌이나 아름다운 조개껍질에 내 자신을 쏟으며 나는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왔다. (부르스터 뉴턴 회고록 제2권 제27장) 명성을 떨친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연구해 낸 결론은 잠정적인 것이며 아울러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점의 뜻을 바꿀 보다 큰 관점이 나타나면 자기의 것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자기 생활에 다소나마 적용할 수 있고 전도를 약속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과학을 쫓고 있는 것이다.

종교도 이같이 겸손한 태도, 정신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주님은 욕의 물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답하였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욥기 38 : 2) 베냐민 왕도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만사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모사이야 14 : 9)는 말로 이 점을 명확히 하셨다. 이사야도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 : 8-9)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 : 12)는 말로 사도 바울은 정리하고 있다.

비록 복음이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 아들, 성신으로부터 온다 하여도 “미약한 나의 종들에게 저희의 말로 준 것이니, 이는 저들도 이를 깨닫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해할 수 없다. 인간처럼 이해한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마음의 문을 열어 알고자 하는 열의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영원토록 창조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다.

3. 과학적인, 종교적인 관점에 성장과 변화를 허용한다.

우리는 위에서 과학적인 발견은 잠정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과 이미 알려진 것이 얼마나 미미한가를 살펴보았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복음이 영원한 원리를 다 담고 있어도 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의 본성, 자유, 사랑, 회개, 기타 다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할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 신앙과 이성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나의 정직에 관한 견해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곧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렸을 때의 견해보다는 훨씬 크다. 다행히도 모든 원리에 같은 과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사랑이 무엇인가, 친구에게는 물론 나의 “적”에게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으며 사업에, 개인의 권리에, 국제 관계 개선에 어떻게 하면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까를 배우고 있다.

케테는 그의 불후의 명작 파우스트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세낸 것을 새롭게 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들라.”고 역설하고 있다. 말일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시간과 환경아래서 복음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복음의 씨앗이 뿌리가 되어 나무로 성장하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겠다.

4. 신앙과 이성애, 히브리 및 히랍 전통에 충실함

구세주와 선지자의 신앙 또는 도덕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성은 우리들 생활 속에서 스스로 증명하였다 하겠다. 시편 23편을 읽으면 인간의 존재가 비극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희망과 위안을 얻게된다. 신앙, 회개,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가까운 위치에 서서, 예수가 주신 복음을 좇는다면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할 설계도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복음은 “큰 신앙”을 요구함과 동시에 상당히 이성적이다.

과학도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그의 효용성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공포, 미신, 질병에서 구해주며 생명의 연장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연의 힘과 율법을 생각케 한다. 또한 학문에 열중하는 정신과 방법을 주어 인생의 나아갈 길을 찬란한 방법으로 열어주는 것이다. 신앙과 연구가 이같이 다 필요한데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인가? 어찌하여 갈등에의 종식을 고하지 못하는가? 종교적인 면에서나 학구적인 면에서 진리를 탐구할 때처럼 신앙과 이성을 함께 사용치 않는가?

바람직한 삶이란 신앙의 협조를 받으며 지식의 인도를 받아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우리들 모두가 연구와 신앙의 태도로 이를 추구하는 지혜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

● 복음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재조직, 선교사의 간증 및 진실성, 물몬경의 멧세지,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의 진리성 등은 수많은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새로운 교회가 조직되었다는 사실에 의심에 가득찬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직하고 의를 갈구하여 복음의 울타리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다. 한 마을에서 한 사람, 한 가족에서 두 사람, 침례를 원하는 사람은 날로 늘어만 간다. 미국, 캐나다를 필두로 후에는 영국, 요즈음은 세계 전역에 걸쳐 전도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 왕국의 문을 거친 사람들은 곧 교회 회원이 되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든 집을 버리고 선지자와 그의 백성을 따라 나섰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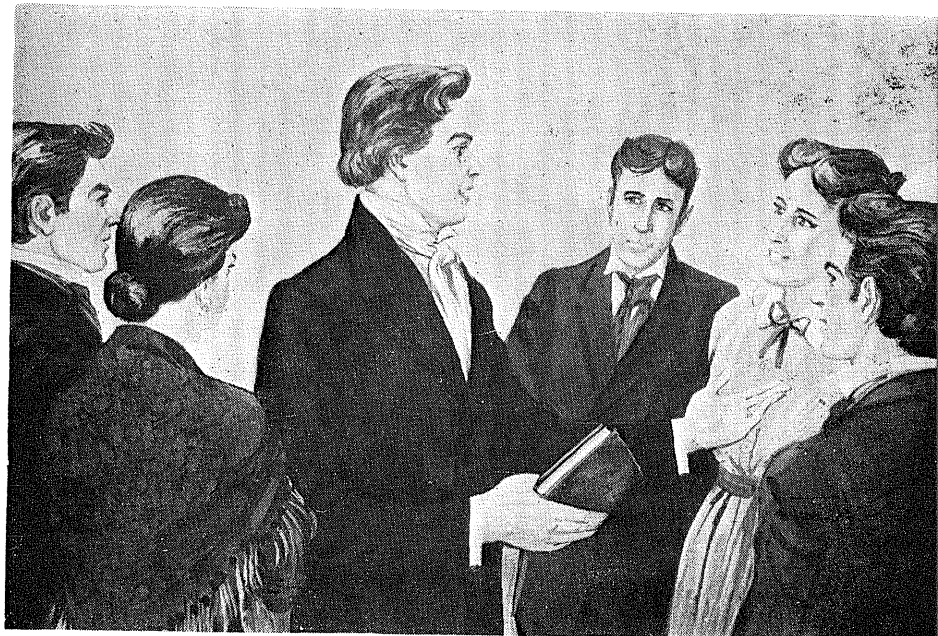
조그만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박해 또한 가중되었으니 활동의 중심을 뉴욕주에서 오하이오로, 다시 미시시피강을 건너 미국 서부 경계선인 미쥬리주 잭슨군으로 옮기자

물몬 이야기

도일 엘. 그린

임프르브먼트 이라 편집장

선교사들은 복음의 멧세지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미국에 다음에는 캐나다, 유럽, 남태평양 그리고 전세계에 복음의 씨앗은 뿌러지기 시작하였다.



않으면 안되었다. 이들을 이끈 여러 교회의 지도자는 이곳이 바로 교회 회원이 집합할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였다. 이 곳에서야 토지를 구입하여 가정을 이루며 도시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새로운 정착민과 토착민과의 사이에는 공통적인 면이 적었다. 미쥬리주의 상태는 남부의 그것과 흡사하여 노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간을 억압하는 사제는 물몬의 자유관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갑자기 많은 사람의 이주로, 특히 한 군으로 밀어닥치자 원래 토착민들은 정치적인 세력 분포에서 균형을 잃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새로운 이주자들의 신앙과

교리가 어쩌나 이상하고 틀린지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은 몸과 지체와 감정을 가지고 계신 사랑에 충만한 분이러든가, 그분의 사업과 영광은 곧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든가, 다시 인간과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셨는가 하면, 예수가 지상에 계실 때 세우셨던 조직의 형태대로 자신의 교회를 재조직하셨다고 꺼리낌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신회는 서로 다른 세분의 개체로 구성되었다고 믿었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정통 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이해조차 못하였으며 급기야는 그들의 가르침은 이단이라고 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오해, 불신, 편견은 폭력을 유발하였다. 주지사나 법원에 문제의 해결을 의뢰하여 보았으나 허사였다. 다른 지역에서 평화롭게 정착하게 해달라는 간청도 묵살되었다. 마침내 주지사의 명령을 받고 미쵸리주를 떠나야만 했다.

잠간 사이에 고통에 시달리던 교회는 일리노이주에 성역을 마련하였다. 1839년 요셉 스미스는 테스 무아네스의 상류, 웅장한 미시시피강이 서쪽으로 굽는 곳에 수백 에이커의 땅을 사서 회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당시에는 코머스라 불리우는 사막에 가까운 보잘 것 없는 땅이었다. 이름을 아름다운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부”로 바꾸고, 열심히 일하여 자신의 기반을 닦으면서 가정, 집회장소 및 학교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1843년초 “성도의 도시”의 인구는 만 이천 내지 만 육천이었다. 정부가 수립되고 현장이 채택되었다.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나부는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 방문하는 사람마다 도시의 아름다움을 격찬하였으며 도시 주민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부러워 하였다. 결혼과 같은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할 아름다운 신전을 세우게끔 되었다. 회복된 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으로 권능을 소유한 사람에 의하여 합당하게 집행된다면 영원토록 결혼의 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백년해로”라는 말은 말일성도의 결혼식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런가하면 신전에서는 이 지상에 살면서 진리에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돌아가신 선조를 위하여 매리로 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존경하는 위치에 처한 분은 아니나 어느 시대의 누구이건 간에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승영을 위해 노력할 기회는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당하였던 어려운 문제가 나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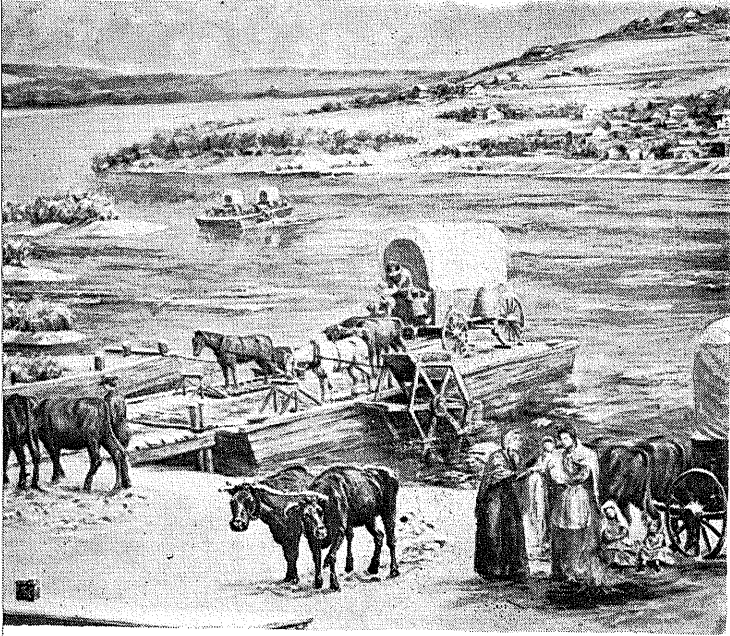
성도들은 폭도들에 의해서 방화된 아름다운 도시 “나부”를 떠나 서쪽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도 시작되었다. 선지자는 무자비한 박해가 현저하게 늘어 가는데다가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까지 겹쳐 이전의 비극이 되풀이될 것을 예견하였다.

1844년 2월 20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쓰셨다. “나는 십이사도에게 지시하여 오레곤, 캘리포니아주 지방을 답사할 조사단을 파견토록 하였다. 우리가 신전을 완성한 다음에 옮겨가 언젠가는 도시를 세우고 우리들 자신의 정부를 세울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다. 아주 깊은 산으로 들어가 악마의 손길이 다시는 우리를 파내지 못하는 곳, 기후도 좋고,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구해야 한다.” 동쪽에서는 짙은 구름과 암흑밖에는 보이지 않으나 “서쪽에는 광명”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교회를 향한 절대적 의식과 억압은 놀라운 정도로 빨리 번져 조사단의 파견은 실현을 보지 못했다. 견잡을 수 없는 폭력의 폭풍이 나무를 뒤덮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은 미시시피강을 건너 아이오와주로 피신하여 위험을 모

1846년 한겨울 선발대는 정든 집을 작별하고 미시시피강을 건너 1천 5백 마일의 럭키 계곡으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면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길지 않았으니 많은 사람이 돌아와 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반역죄로 체포되어 재판정에 서는 몸이 되었다.

재판이나 구속을 두려워할 요셉이 아니었다. 무고한 죄목으로 46번이나 체포된 경험이 있었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었다. 정부관리들이 절대로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은 하였으나 요셉 스미스만 죽어 없애버리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끝장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폭도의 횡포를 벗어날 길이 없음을 요셉은 너무도 잘

알았다.

“나의 친구에게 필요없는 생명이라면 나에게도 필요없는 것일세.”라고 찾아온 친구에게 말했다. 강을 다시 건너 주지사와 살기등등한 폭도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지를 향하여 갔다. 근처에 다다른 요셉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던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던지 털끝 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 나는 죄없이 죽임을 당하려니와 세상 사람들은 저는 잔인한 자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말하리라.” 1844년 6월 24일이었다. 3일후 일단의 폭도가 감옥을 부시고 들어와 요셉과 그의 형을 무참히 학살하였던 것이다. 선지자 요셉 스미스는 자신의 피로 간증을 인봉하였다.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재조직된 교회는 그를 제거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침통한 분위기에 젖어있는 사람이 많았으나 나부시는 하등의 동요도 없었다. “동요치 말라. 다만 주님은 하나님 이심을 알라.”는 말에 회원은 따랐을 뿐이다. 십이사도 정원회는 부리감 영을 회장으로 하여 회원을 지도하였다. 교회의 조직 및 기능은 전과 같이 계속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의 죽음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하여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요셉이 세상을 떠났다고 박해가 그친 것은 아니었다. 편견은 계속되어 주민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었다. 나부시의 현장은 폐기되었다. 일리나이주 당국은 물몬에게 주를 떠나라고 명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신앙과 종교를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이는 가정,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 아닌가? 간증을 버린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되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부정한다는 말인가?

답은 꼭 한 가지였다. 순교당한 선지자의 계획에 따르는 것이었다. 서쪽 럭키 산맥인들 못가겠는가? 그 곳에 다시 타지 않을 가정을 짓고, 다시는 버리지 않을 신전을 짓는 것이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르칸사스 주지사였던 토마스 드루씨는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본인은 귀교에서 갖추고 있는 조직의 효용성을 시험해 보며, 인류가 처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주어진 조건을 개발하여, 개인과 종교의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박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옮기시겠다는 의견에 찬동하는 바입니다. 말일성도가 오레곤주로 이민하는 경우 박애주의자의 회의와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특혜 조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제의에 따르시게 되면 이를 개명한 세상에 증명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의 여유를 요청했다. 재산을 처분하고 마차를 만들며 이를 끌 말이나 소를 살 시간, 1500마일의 대평원을 지나면서 사용할 양식을 작만할 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계곡을 찾아 1500마일! 뱀박자를 피해 대륙의 반을 횡단해야 한다.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아이오와주를 통하여 500마일을 여행한 다음 미시시피 강을 건너 오하마, 수, 우터 인디언이 살고 있는 문명과는 외면한 지역을 거쳐 1000마일을 이동해야 한다.

6개월이 긴 기간은 아니었다. 그러나 폭도는 이도 참아 내지 못하여 폭력을 일삼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연방정부에서는 그들의 계획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곧 떠나지 않으면 파멸이었다. 이 일만은 당하지 않아야 했다. 선지자가 받은 운명을 교회가 또한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장간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쇠뚝두리는 소리가 났다.

춥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는 1846년 1월 4일 선발대가 정든 집을 작별하고 강을 건너 황무지와 야만인이 기다리고 있는 땅을 밟기 시작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15일경이 되자 한 마일이나 되는 미시시피강은 얼어붙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얼음 위를 걸어 지나갈 수 있었다. 4월 하순 대부분의 물몬은 정든 도시를 떠났다.

도시 전체가 황야로 옮긴다는 사실을 상상하여 보라. 그들은 개척자거나 여행자도 아니었다. 박해자들은 이들이 이동하다가 평원에서 전부 죽기를 바랐을 것이다.

성급히 떠나는 길이라 준비가 채 되지도 않은 사람이 많았다. 첫날 밤을 편안한 집에서 10마일도 안 떨어진 슈가크리크에 야영을 치고 보냈다. 마차 안에서 또는 추위와 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간단히 만든 요람에서 9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나 곧 캠프를 조직하여 서쪽을 향하였다. 겨울에는 심한 눈, 봄에는 비와 진흙 사이를 헤쳐 매일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여 갔다. 언 발과 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행의 고초를 앞으로 닥칠 뱀박에 비교하여 볼 때 사실 이는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루의 피로한 여정이 끝나면 성도는 눈을 말끔히 치워놓고 민속무용을 즐기던가 하여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평원에 음악소리, 손벽치는 소리, 발구르는 소리를 메아리쳤다.

“씨를 뿌려 뒤에 오는 사람이 거두게 하라”는 말을 표어처럼 사용했다. 봄도 여름으로 바뀌자 선발대는 길 옆 수백 에이커의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는 하였다. 후발대가 김을 매어주면 그 다음의 후속대가 익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은 멕시코와 전쟁 중에 있었다. 6월 26일 피스가 산에 친 캠프에 기마병 3명이 찾아들었다. 이들은 500명의 지원대를 조직하여 캘리포니아로 진주하라는 공문을 가지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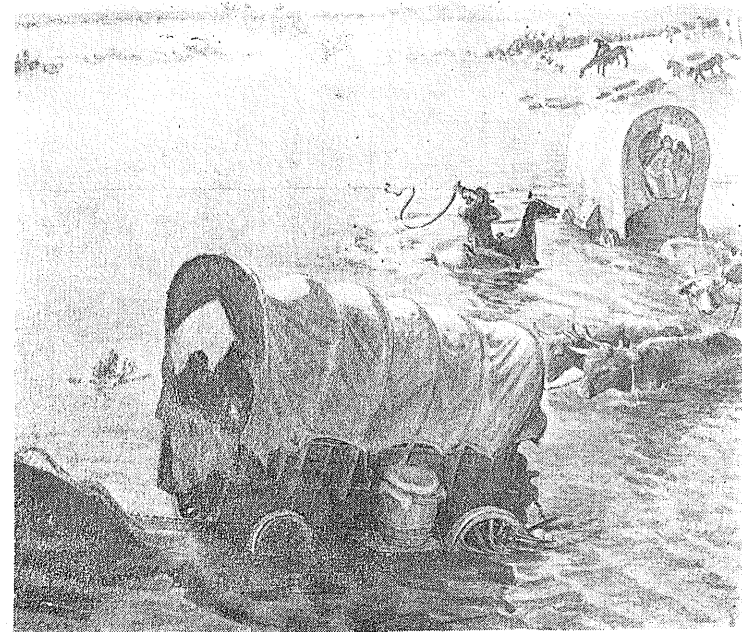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부의 협조를 구했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부리감 영은 이 기회가 물몬 교도가 미국에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기회이며 그렇게 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할당된 병력

수는 억압에 지칠대로 지친 회원에게 가중한 힘이 되며 심지어는 아버지나 장정을 빼고 나면 평원을 지날 일이 감감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부리감 영은 젊은이에게 입대를 권고하였으며 500명의 장정이 삽시간에 모였던 것이다.

물몬 대대가 캔사스와 현재는 슈벙시코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에는 무인지경의 땅, 아리조나, 캘리포니아주를 지나 진군하여 보병 행군으로는 가장 긴 행군을 했다는 이야기는 흥미있는 기록이다. 이들은 다시 계곡에서 가족과의 재회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1846년 가을 3천대의 마차를 가진 1만 5천명, 가축 삼만두, 수 많은 양, 소와 말이 미조리강으로 이동 완료하였다. 그들은 추운 겨울을 이곳에서 나기로 작정하고 되도록이면 편하게 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일월초에는 물론 완전한 형태를 갖춘 가옥은 아니라 해도 약 1천여채의 집을 세웠다.

실로 어려운 겨울이었다. 영양 실조, 보잘 것 없는 의복 및 거처, 심한 병이 만연하여 설상가상으로 고생하지 않을

와이오밍주의 프레트강을 건너가는 포장마차



수 없었다. 이를 증명하는 한 예로 네브라스카, 후로렌스 위 언덕 묘지에 600여명에 이르는 회원이 조용히 잠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봄은 역시 찾아들었다. 이스라엘의 야영은 다시 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리감 영이 이끄는 선발대와 십이사도가 인도하는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

부리감 영이 자기들이 정착할 곳이라고 말씀하신 솔트레이크 계곡에 선발대가 당도한 것은 7월 하순이었다. 이 지역에는 옥수수조차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짐 부릿저의 제의

도 이 과감한 지도자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캘리포니아로 가자는 애원도 별무 효과였다.

6월 26일 솔트레이크 시를 굽어보는 위치에 우뚝 솟은 엔사인 봉우리에 몇 사람과 함께 있던 부리감 영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형제들, 이제 탐험대를 조직하여 인디안의 습격을 피할 수 있나 살펴봅시오. 한편 마음내키는 대로 가서 조사해보면 아마도 이곳이 바로 우리가 정착할 곳이라는 말을 하게 될 거요.”

부리감 영은 후에 “나는 나부 신전 안에서 이 지역에 옥수수가 자라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했다. 또한 일년, 아니 그 이전에 시련을 통하여 이 계곡을 보았던 것이다.

“요셉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우리는 이 땅에 관하여 장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눈적이 많았다.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 아무런 뜻이 없다고 생각지 말아 주기를 바란다. 전능하신 분의 섭리였으며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혼자라면 그런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냈을 것인가?”

선발대가 계곡에 도착하고 채 몇 시간이 지나기 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릴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땅이 하루 매말라 작업이 힘들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그들은 곧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막아 매말라 갈라진 땅에 뿌렸다. 이는 북 아메리카의 현대 관개 시설의 시작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일본 일초가 귀하였다. 절기는 이미 늦어 산악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렸다. 서둘러 밭을 갈고 며칠사이에 넓은 땅에 씨를 뿌렸다.

겨울을 윈터 쿼터즈에서 난 사람이 속속 도착하여 계곡의 인구는 2,100명에 달했다. 한편 학교를 세우고, 도시를 계획하는가 하면, 산에서 잘라온 나무 기둥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정원을 다듬는가 하면 신전을 세울 땅을 골라두었고, 육중한 나무와 햇볕에 말려 구운 벽돌로 10에이커에 달하는 요새를 구축하였으며 통나무, 벽돌 집을 세웠다. 부리감 영은 두 무리를 이끌고 윈터 쿼터즈로 돌아가서 내년에 많은 사람이 계곡으로 갈 준비를 하였다. 게으른 사람은 물론이 되기 힘들다.

지금은 유타주의 꽃인 시고 백합의 뿌리는 부족한 영양보충에 큰 구실을 하였다. 밀, 옥수수, 감자는 두었다가 다시 뿌려야만 했다.

봄이 되자 약 500내지 600에이커의 땅에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었다. 6월에 들어서자 풍작을 약속하는 듯 했다. 그러나 곡식이 익기 시작하자 멸망의 악마라는 이름을 듣기에 족한 메뚜기 떼가 날라들어 푸른 밭을 덮었다. 몇 에이커의 땅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새로운 정착민들은 막대기, 삽, 빗자루, 물, 불 등을 이용하여 메뚜기떼와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메뚜기떼는 마치 “산에서 밀려 내려오는 더러운 물의 홍수처럼” 내려와 곡식을 쪼아 먹었다.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참다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륙을 횡단한 이 충실한 무리는 필요한 때에 외면을 당하지는 않았다. 하늘을

뒤덮은 바다 갈매기가 날라와 검은 죽음의 무리를 삼켜버렸다.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되어 계곡에서 메뚜기 한 마리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갈매기는 유타주를 상징하는 새이다. 솔트레이크시 신전 광장에 가보면 “물몬 개척자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념하기 위하여 갈매기 두 마리 모양의 탑이 높이 솟아 있다.

부리감 영은 그해 가을에 2천 5백명을 계곡으로 인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쉬지않고 계속되었다. 1850년 그 지역의 인구는 1만 5천명, 1867년에는 7만 6천명이 넘었다. 1869년 철도가 놓이기까지 8만 5천명이 이민한 셈이다. 이들 중에는 손수레를 끌거나 밀면서 도보로 계곡까지 온 사람도 많다. 사랑하는 자녀를, 부인을, 남편을 길가에 묻은 사람의 수효도 많다. 늦게 출발하여 중도에서 심한 눈과 무서운 날씨를 만난 손수레 무리에서만 222명을 잃어 자연의 파괴력에 희생된 것이었다. 이 숫자는 5명 중 1명이 넘는 비율이다.

짜디짤 바닷가에 처음 정착한 회원은 미국 역사상 위대한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 유명한 부리감 영의 마차 바퀴의 살인양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이들 정착민이 유타주의 성장 및 건설에 이바지하였음은 물론 아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와이오밍, 몬타나, 콜로라도주의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심지어는 멕시코나 캐나다까지 물몬의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다.

서부를 건설한다는 일이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호전적인 인디안, 정복해야 할 사막, 강, 매마른 땅에 관개 사업, 집, 학교, 교회, 신전, 도로, 교량, 공장의 건립 등 막대한 과제가 놓여 있었으며 편견에 가득찬 사람을 개종자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시련은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 드루 주지사가 예언한 대로 말일성도는 “그들이 가진 바 신앙의 실용성을 시험해 볼 시간과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오늘날 교회 회원의 수는 2백 5십만을 넘고 있다. 서부 여러 주에 밀집한 상태이나 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구라과, 일본,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태평양 제주, 남 아프리카, 근동 및 극동에 회원 증가율은 괄목할만하다.

주일이면 예배당은 회원으로 가득 찼다. 어린이를 위한 초등협회, 젊은이를 위한 상향회, 성인남녀 가족을 위한 특별활동, 체육 행사, 소년단 행사, 무용, 파티, 음악 연주, 웅변등의 일하고 연구하며 사교를 즐기는 행사가 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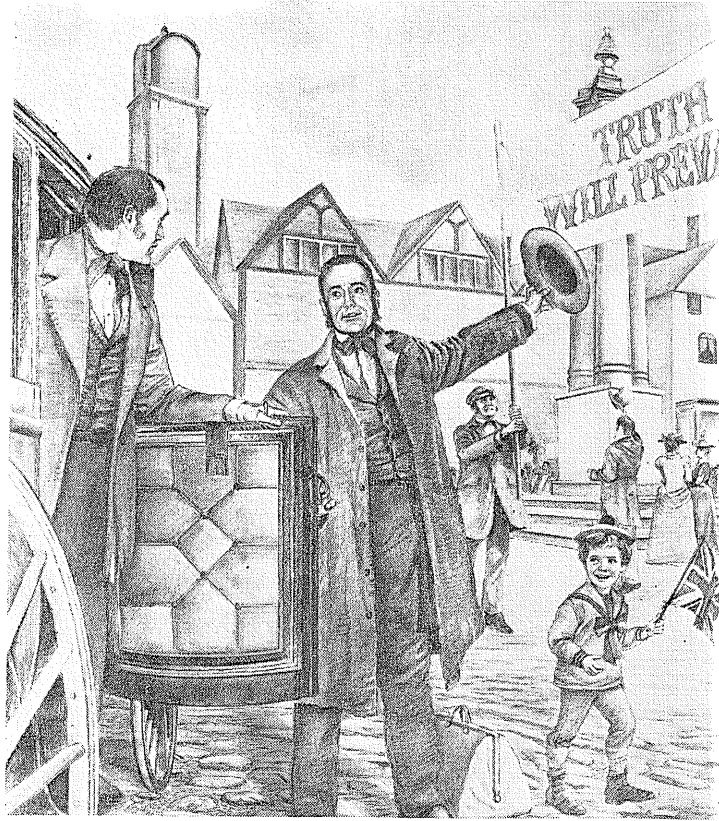
종교, 사업, 과학, 예술, 교육, 사회 봉사, 그 어느 면에서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두각을 나타내어 구세주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라고 하신 말씀을 실증하고도 남는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서부에서 본 그 빛이 찬연히 빛나고 있다. ○

사진이 있는 기사

초대 선교사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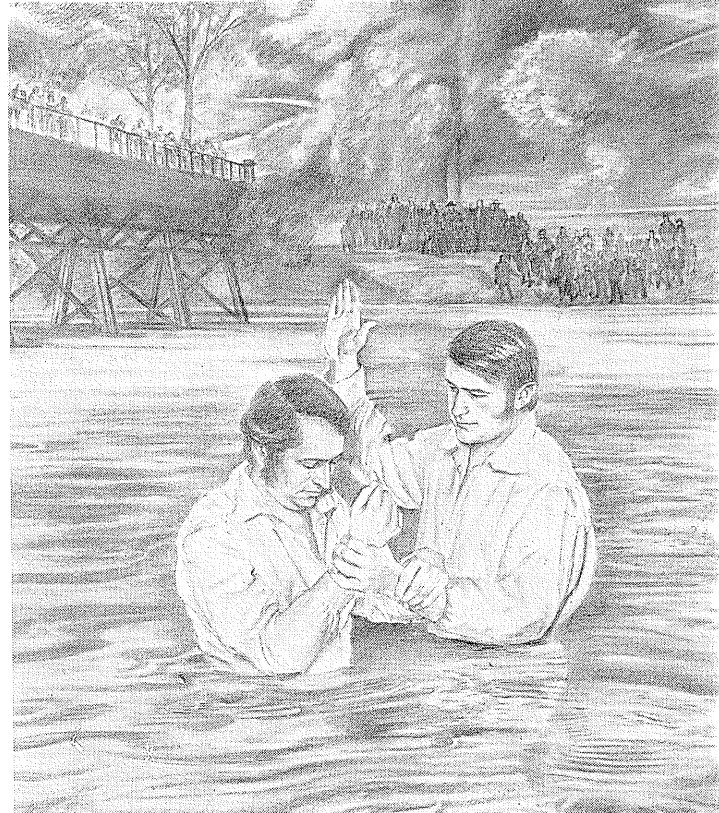
영국에 파견된 초대 선교사 7명은 1837년 7월 22일 투표일의 들뜬 분위기 속에 영국 프레스톤에 도착하였다. 그들 머리 위에 휘날리는 “진리는 승리한다.”라는 정치 구호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그들이 리버풀 도착 2일 후, 오하이오주 커트랜드에 계시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히버 씨. 킴볼 사도를 향하여 “히버 형제, 주님의 영이 나에게 속삭이는군요. 나의 종 히버를 영국에 보내어 내 복음을 전파케 하며 그 나라에 구원의 문을 열도록 하라.”는 말씀을 할 후 46일째 되는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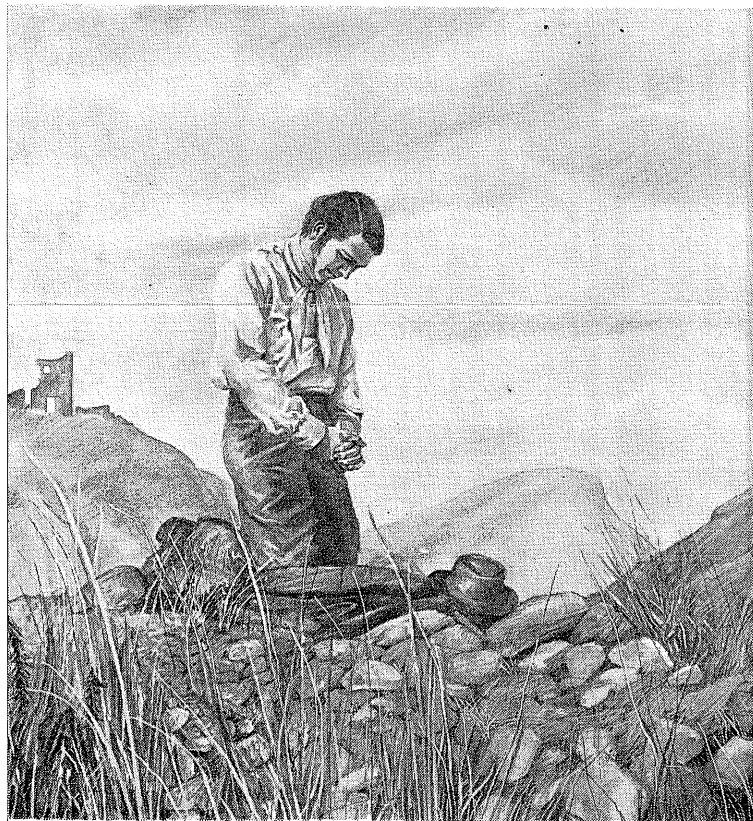


영국에서의 회복된 복음

영국 최초의 침례

선교사가 영국에 도착하여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9명의 개종자가 프레스톤의 리블 강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다. 고대 미국의 선지자가 쓴 성스러운 기록이 회복되었으며 천사가 직접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구라파에서는 처음으로 거행되는 침례식을 구경하려고 “7천 내지 9천명”이 강둑을 메웠다.





스콧트랜드에서의 회복된 복음

1840년 올손 프랫 장로는 이미 그곳에 파견된 장로를 만나기 위하여 스콧트랜드를 찾았다. 홀리루드와 에딘바라 성 위에 높게 치솟은 황폐한 아더의 봉우리에 올라 개종자 200명을 갖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다. 4개월이 채 안되어 에딘바라, 글래스고우, 안커럼 지역에서 200명이 넘는 회원이 생겼다. 이후로 성도는 이 언덕을 “프랫 언덕”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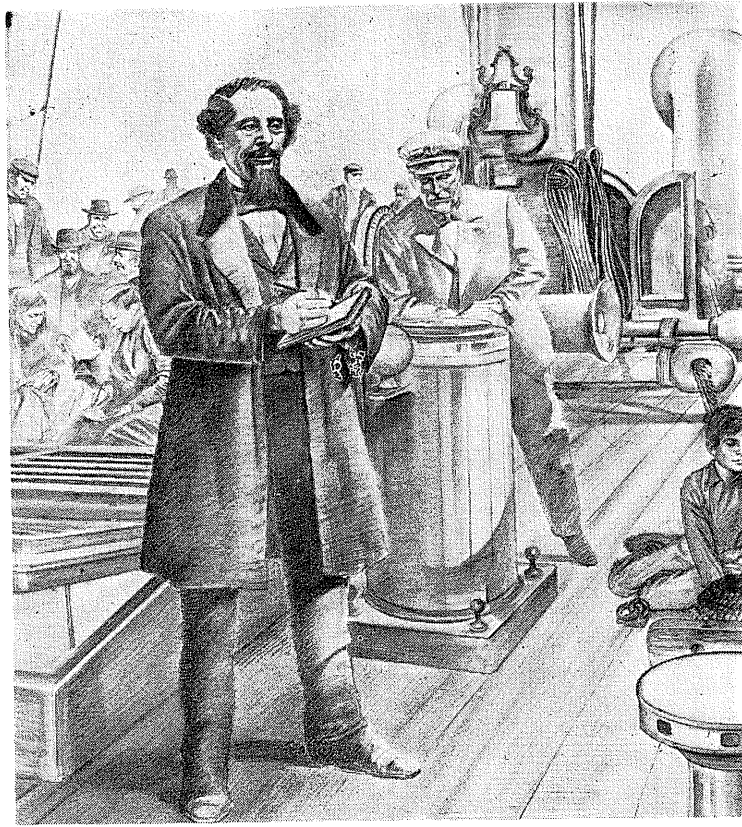


부리감 영 런던을 방문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부리감 영은 1840년 가을에 런던을 방문하였다. 이 곳에서 히버 씨, 킴블, 윌포드 우드럽 및 12사도 정원회의 헌신적인 노고를 직접 목격하였다. 4년 후에 영 장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영국의 회원을 포함한 수많은 성도를 서쪽의 새로운 시온 땅으로 인도하였다. 49년 후 우드럽 장로는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를 받았다.

찰스 디킨스 몰몬 이민선에 타다

6월의 찌는 듯한 아침(1863년 6월 4일) 빅토리아 시대의 호명할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런던항에 정박중인 “아마존” 호에 승선하여 이에 대한 인상을 “순수한 여행자”라는 책에 기술하여 놓았다. “800명이 함께 모여 있는 것도 용이한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게다가 아름답고,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으니 더욱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나는 이전에 충분히 들어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고 정말로 그렇다면 신랄한 비판을 가할 심산으로 배에 올랐다. 그러나 정직한 목격자로서 볼 때 이제까지의 경향이 나 태도는 합당치 못하였다. ...훌륭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맥케이 대관장님과 런던 신전

“1958년, 61년 전에 스코트랜드의 선교사로 봉직한 바 있는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영국에 다시 오서 런던 신전을 헌납 하셨습니다. 선교사가 처음으로 영국 땅에 발을 딛고 121년이 지났을 때 이루어진 일이다. 속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세워진 신전은 영국 교회사의 신기원을 기록한 것이었다. 이후로 매년 계속하여 영적인 위대한 사업이 계속되었다.”





금식과 기도

마리안느 씨 샤프

●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금식과 기도의 효험에 대하여 한번쯤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된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금식으로 우리는 과식의 죄악을 세상 느끼게 되며, 육신을 자신의 영에 굴복시킬 수 있으며, 그리하여 성신과의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또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재확인 할 수 있다. 금식은 기도를 수반하여야 한다. 이 율법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다. (복음 교리 제3판 298페이지)

다니엘은 삼주일을 계속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낸 다음에 권능을 받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다니엘 10 : 3, 12)

금식과 이의 능력에 관한 것은 모사이아의 아들의 경험으로 잘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엘마서 17 : 3)

참다운 금식은 실제로 경험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예를 교리와 성약에서 찾아보면!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꿔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이다.

진실로 이것이 금식이요 기도니, 다시 말하면 기쁨이요 기도니라.”(교성 59 : 13, 14) 사실 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여 놓았으나 이 금식의 원리는 각 개인의 생활에 맡겨진 복음 안에서, 그에 따르는 마음의 태도로 지켜져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금식일에 몇 번 정도의 기도를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자가 결정할 것이다. 아울러 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과연 기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도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죽을 병이나 아주 심한 고통을 받을 때에는 본능적으로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찾는 예를 종종 보아왔다.

아마도 그 속에 숨어 있는 능력을 경전에서 보아 알고 있던 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명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주님은 하고저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금식하면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주님의 말씀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마태 6 : 16—18)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다. “다른 말로 바꾸어 한다면 세상 사람에게 행복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개인이 결정하여 금식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스미스 대관장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24시간을 보내 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율법은 아니다. 이는 깨뜨릴래야 깨뜨릴 수 없는 율법이나 법률이 아니며 우리의 양심에 맡겨진 문제이며 우리의 지혜와 결정을 시험하고 행사해 보는 것이다.”(복음 교리 제3판 306페이지)

계속하여 말씀하기를:

“안식일에 온전한 금식이 되게 하며 그리하여 충분한 기쁨을 맛볼 수 있으려면 단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며 기도인 것이다.”(복음 교리 제3판 308페이지)

예언자 요셉은 1843년 1월 17일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셨다.

“십이사도회에서 위대한 엘로힘 앞에 감사, 겸손, 금식, 찬양, 기도를 드리는 날로 정한 날이다. 내가 폭도의 손에서 풀려 나오던 날 기뻐하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교회 정사 제5권 252페이지)

금식은 자신의 깊은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표시이다. 간절한 기도며 감사의 기도다. 특별한 부름에 준비하기 위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며, 사랑의 기도며, 신앙의 참됨을 감사하는 기도인 것이다. 누구나 금식과 기도의 기쁨은 맛볼 수 있다. 스스로 드린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마음을 인도하는 불을 갖게 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



주일 학교 페이지

교사라면 성경을 심오하고 어려운 책이기는 하지만 9살 혹은 10살난 어린이가 좋아하는 책으로 꼽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책임에 임할 때.....

성경의 승리

주월 비. 엘킹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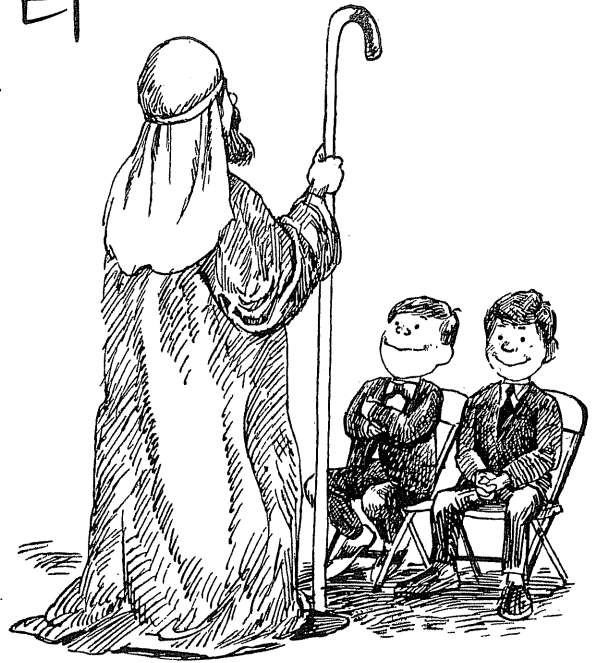
● 내가 가지고 있는 공과 책 서두에 보면 교사로서 꼭 갖추어야 할 세가지 의무가 적혀있다.

1. 흥미를 갖는다.
2. 확신을 갖는다.
3. 열의를 갖는다.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공과를 준비하니 큰 도움이 되었다. 비록 나의 간증이 강하고 반 공과를 가르치는 것이 크고 위대한 특전이며 기회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여도 역시 흥미있고 또한 의미있는 공과를 전해 주기 위하여는 대단한 노력과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다. 분명히 노력하는 것에 해당하는 영광을 받는다.

특히 “성경—성스러운 기록”이란 공과를 가르치는 과정은 실로 우리가 해야할 바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준 공과였다. 어떻게 하면 성경과 같은 심오하고 어려운 책을 9살 10살 난 어린이에게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하는 문제였다. 나는 성경의 방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면을 다루는 것 보다는 어느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곳에 나타나는 인물과 친숙하게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시도해 보기로 작정했다. 어린이로 하여금 될 수 있는대로 쉽게 풀이한 성경을 많이 읽도록 권장하였다.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맡겨 금방 실증을 느끼게 하지 않고 살짝 맛만 보인 다음 더 먹고 싶다는 욕망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종하였다. 여러 사람에게 임명하여 직접 간접으로 공과에 참여케 하였다.

첫째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아이에게 맡긴다. 그리



고는 세 아이에게 내가 그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편지로 써서 주었다. (이 나이 또래에는 전화를 거는 것 보다는 편지로 하는 게 더 재미있고 효과적이다.) 즉 다음과 같은 숙제를 주었다.

1. “성경”이란 말의 뜻을 찾아주겠니? 성경은 크게 두 권으로 나뉘어 졌는데 그게 무엇 무엇이고, 왜 그렇게 나뉘어 졌을까? 알아와 주겠니?
2. 잠언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골라보겠니?
3.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보아라. 성경에서 잘 읽고 그 이야기를 반에 와서 여러 친구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맨 마지막에 내가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시간을 할당했다.

이러한 나의 구상은 친절한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남편은 옷대신 낡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머리에는 삼베조각을 빗줄로 묶어 만든 모자를 쓰고 짙은 색의 무명으로 속 옷을 만들어 입고 옛날신이 없었기 때문에 발은 맨 말이었다. 정원에서 구한 막대기를 지팡이로 들어 그 당시의 모세를 표현하느라고 애썼다. 거기에다 흰 수염까지를 만들어 붙였던 것이다.

공과가 반쯤 지났을 때 모세가 녹크를 했다. 안으로 청하여 들어온 모세를 보자 어린이들은 놀람과 기쁨은 두말할 것도 없었으며 모세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내가 준비하는 동안에 쏟은 주의력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열중하는 것이 아닌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면서 몸소 겪었던 이야기를 신중하게, 그러나 아주 실감나게 들려주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도 설명해주었다. 어린이와 함께 십계명을 하나 하나 들어가며, 특히 다섯번 째

의 계명을 강조하고 부모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여 주었다.

배운 것을 잊지 않게 하며 성경상의 사건에 강한 인상을 남기게 하기 위하여 집에 가서 스크랩 북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몇 개씩 주었다. 십계명을 예쁜 글씨체로 쓴 것, 돌판을 깨뜨리는 모세의 사진, 성경을 찾기 쉽게 표시하는 물건, 산상수훈 장면 사진등이다.

모세를 제외하고라도 성경상에 나타나는 인물이면 반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매번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잘만 하면 성경을 자신과는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책으로 생각하게 하며 성경상의 인물이 글자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닌 정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읽고 그 속에 숨겨진 위대한 진리를 배우겠다는 열의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다. ○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봉독

장년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
입니다. (마태복음 5:8)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니파이일서 3:7)

8월 주일학교 성구 암송

기초교리반

야고보반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
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
음을 가졌더라. (요한 계시록 14:6)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
술로는 나를 양성하나 그 마음을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
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
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사야 29:13~14)

젊은이에게
주는
관리감독단의
말씀

회 개

존 에이치. 반텐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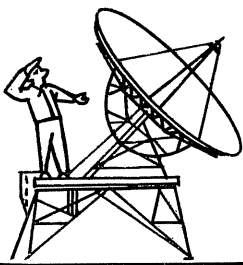
●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우주 계획의 발전은 과학이 여러 사람을 위해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업적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아폴로 8호의 임무 수행은 과학적으로 볼 때 위대한 성공이었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우리의 개인 생활에 적용할 교훈을 던져주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우주선을 인도하는 물체가 갖는 의미이다. 아폴로 우주선이 지구 궤도를 벗어나면 곧 우주선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와 지상 관제소에 설치된 기계는 우주선이 제 궤도를 따라 움직여 정해진 임무 수행에 이상이 없음을 살핀다.

우주선에 안내 기구가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길에서 벗어나려 할 때 일깨워주는 선물이 있다. 니파이 민족의 선지자인 물몬은 이 안내자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선과 악을 구별하여 판단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다. 또한 이를 판단하는 일은 낮과 밤을 구별하여 온전하게 아는 것같이 지극히 간단한 일이다.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모로나이서 7:15-16)

아폴로를 뒤쫓는 관제소가 지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도 생의 진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제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부모, 감독, 정원회 회장단, 가정 복음 교사, 정원회 고문, 교사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다. 이분들은 우리가 승영의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 생활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분들이다.

바람직한 길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곧 손을 쓰는 것이



...우리들 모두도 생의 진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제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하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의 격려에 민감해야 하지만 우리들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모나 지도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의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시정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여 주셨다. 우리는 이 과정을 회개라 부른다. 우리의 비뚤어진 삶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오게 하며 영생이라는 원대한 목적을 향해 곧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사소한 이탈로 생각되는 것을 재빨리 알아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위 사소한 이탈로 간과하기 쉬운 잘못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좀먹기 때문이다. “털끝 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고 주님은 강경하게 말씀하셨다.

아주 적은 잘못이나 이탈은 승영에 이르는 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태의 죄악이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승영으로 나아가는 길을 꾸준히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관제소의 시정을 받아 제 계도를 찾는 것처럼 회개하는 가운데 참다운 진로를 발견, 매진해야 한다.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제일 큰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의 진로를 다시 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겠다. 우리 주님의 속죄의 결과로 가능한 것이다. 회개를 거쳐 우리의 생활을 바로 잡으며 그리하여 의를 멀리한 죄악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우주선의 계도를 바로 잡기 위하여 꼭 필요한 단계가 있는 것처럼 회개가 참다운 회개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있다.

참다운 회개에 필요한 첫째 조건은 우선 자신의 과오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백케이 대판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인간이 자신의 과오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람은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를 상실하고 있는 것과 같다. 즉 현재로 자신의 상태 보다 더 크고, 훌륭하고, 바람직한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만족이라는 토양에서는 참다운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참다운 성장이란 나무의 뿌리는 불만족이란 달걀지 앓은 손님을 만나게 된다.

“자신의 과오를 의식조차 못하는 사람을 하늘은 불쌍히 여긴다.”

둘째로 죄지은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다. 단순히 반성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의미에서 후회하는 심령이 필요하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형태의 후회를 신이 할 수 있는 회개라 일컫고 있다. 고린도에 있던 회개한 성도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조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린도후서 7:9-10)

셋째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또 참다운 의미에서 후회한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단계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성 58:43)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것인가? 교리와 성약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로서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는 나 주가 그 죄를 용서하여 주 나니……”(교성 64:7)

이 성구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주 중한 범법 사실은 “이스라엘의 판사”인 감독에게도 고백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과 화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는 성립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만한 일이 있는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태복음 5:23-24)

다섯째로,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시정한 후에 다시 같은 과오를 범하여서는 이전의 회개가 아무 소용도 없다.

승영이란 궁극의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부단히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회개하여 자신의 생활을 본래의 계도에 올려놓도록 노력해야 한다.

○



청소년편

간직하고 싶은 추억 다섯가지

대 학 생

● 1926년 임프르브먼트 이라는 대학 졸업생이 아버지에게 바라는 인상적인 기사를 실었다. 오늘의 젊은이도 당시의 이 대학생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 아버지, 어머니는 집에 계시면서 작난감이나 돈으로 우리를 내보내려 하신다. 놀면서도 항상 유쾌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아버지와 함께 어울려 소풍이나 구경 한번쯤 가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2. 묵묵히 앉아서 신문이나 읽고 계신 아버지시다. 가족이 함께 모여 노래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마음껏 뛰어놀아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3. 아침이면 의례이 오늘 할 일은 무엇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와 함께 의논하셔서 일을 체계있게 하시는 날이 한 달, 일 주일, 아니 하루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4. 우리가 아침에 나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지키시고, 오후에 두 분이 나가시면 우리가 집에 남게 된다. 가족이 다 함께 어울려 차를 타고 교회에 가보는 안식일이 한번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5. 내가 최선을 다하느라고 하지만 혼자서 결정하여 위험 천만한 일을 하거나 말거나 일체의 간섭을 안하셨다. 자라는 어린이면 누구나 다 겪는 여러가지 문제를 성인으로서의 명확하고 과감한 견해로 일깨워 주신 적이 한번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처럼 가정에 헌신적이며, 가족의 복지와 성공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예는 참으로 봉화 구실을 하였다. 아버지는 우리들 형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몰랐을 뿐이다. 나는 이 점을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땅을 유산으로 주시는 것보다도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심정을 몰라주셨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까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생을 운택하게 하며 그 기쁨을 마련하여 줄 추억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셨던 것이다. 부자가 함께 다니는 것을 보면 아지 못할 슬픔으로 말을 잊지 못하였다. ○

열 사람의 힘

벤 에프. 몰튼슨

● 꼭 한번만 그를 만났을 뿐이다. 한국 동란에 참전 한 제 3보병사단 15연대 소속 말일성도가 모여 가진 성찬식에서였다. 전선의 참호속에 15명이 모여 들었다. 군용 컵에 씨레이손에 들어 있는 과자를 축복하여 성찬을 취했다. 매달 첫째 주일에는 간증 시간을 가졌다.

그는 아이다호 출신의 스튜워드 병장이라고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마친 다음 지난 달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163센치 정도의 작은 키에 약 70키로그램쯤 되는 체구로, 탄탄해 보이는 팔과 어깨가 눈에 띄는 정도의 특징 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운동가가 되고 싶다는 야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코치는 그가 단체 경기의 플레이어로써는 너무나 적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개인 경기 종목에 몰두하여 레슬링과 장거리 선수로 다소간의 이름을 떨쳤다는 것이다. 그는 이등병으로 한국에 파견되었다고 했다. 10개월 후에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상당히 빠른 진급이었으나 그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그는 간증을 하면서 거인으로 통하는 잭슨 중대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대학 시절에 운동계나 한 195센티미터의 거구와 110키로그램의 몸무게를 소유한 사람이었다. 병장은 흥조를 띄우며 전 미국 보병에서 가장 용감하고 예리하며 훌륭한 중대장이라고 극구 찬양하였다. 그는 자신이 출선하여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간 중의 인간이며, 드물게 보는 장교로, 종교를 가진 지휘관으로 그 분 밑에 배속되어 복무하는 것이 하나의 특전이라고까지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모임을 갖기 며칠 전 스튜워드 병장은 정찰

임무를 받았다. 정찰대 선두에 잭슨 중위가, 다이아몬드 대형의 뒷 부분에 스튜워드 병장이 각각 위치하여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산 밑에 거의 당도했을 무렵 적의 저격병의 기습을 받았다. 선두의 중대장은 자동 소총에 맞아 몇 번을 굴렀다. 몸을 끌어 나무와 바위틈으로 기어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한편 정찰대는 산 위로 일단 후퇴하여 재편성을 하였다.

지휘 서열이 다음인 스튜워드 병장은 정찰대를 인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곧 반월형의 방어 대형으로 바꾸고 제일 크고 전장하게 보이는 자를 임명하여 중대장을 구출하도록 하였다. 나머지는 그를 위하여 엄호 사격을 가하기로 하였다.

한 30분간 주위를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 부상당한 중대장의 몸을 가눌 수가 없다는 보고를 했다. 너무도 무거웠던 것이다. 죽은 말을 움직이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다치지 않게 이 자리를 피하자고 들었다. 중대장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 그대로 버리고 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계다가 검둥인테 잘됐지!”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병장은 동료 부하를 향하여 매우 침착한 어조로, “검둥이거나 푸른색이거나 상관없다. 그대로 두고는 떠나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그 분이 그냥 갔을 것이나 말이다. 더구나 그 분은 우리의 중대장이다. 친형제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다. 병장은 상병 앞으로 다가 조용하게 그러나 위엄있게 명령했다. “네가 이곳을 지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가서 모시고 올 테니까.

“조심스럽게 소리를 죽여가며 중대장을 겨누고 있는 저격병을 피하여 살금살금 기어갔다. 중대장 옆에 이르렀을 때 그는 심한 출혈로 기력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중대장은 자기는 가망이 없으니 그대로 돌아가라

고 했다. 어떻게 본대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냐는 것이다. 자기는 그 전에 죽을 것이 뻔한데. 그
 러자 병장은 이제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도움을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다. 헬멧을 벗고
 축늘어진 중대장 옆에 무릎을 꿇으며, “중대장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 모임에 참석한 우리들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그
 의 말에 빠져 있었다. 위대한 인간의 연극을 보고 있
 는 것과 같았다. 지금 너무도 메마른 사랑과 형제
 애를 주제로 한 영적인 연극이 우리들 안면에 전개되
 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병장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
 다. 기도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
 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담배 한대 피우지 않았
 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만은 기억해 낼 수
 있었다. 어떤 형태의 음료이든 알콜이 가미된 것은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고 했다.

잠시동안 머뭇거리고 있던 그는 술과 담배를 금한
 것은 종교적인 신념에 입각하여서였음은 물론 자신의
 운동가로서의 야망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체
 력이 필요함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인정하
 였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는 그 순
 간 자기가 지금까지 왜 지혜의 말씀을 지켜왔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힘이 필요합니다. 보통 때보
 다 훨씬 강한 힘이 말입니다. 지금 제 곁에 부상당해
 누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중대장을 업고 산을 넘어야 합니다. 치료를 받
 아 귀한 생명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님 아버지, 마음과 손이 깨끗하고 순결한 자에게 열
 사람의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진실임을 알고 있습
 니다.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축복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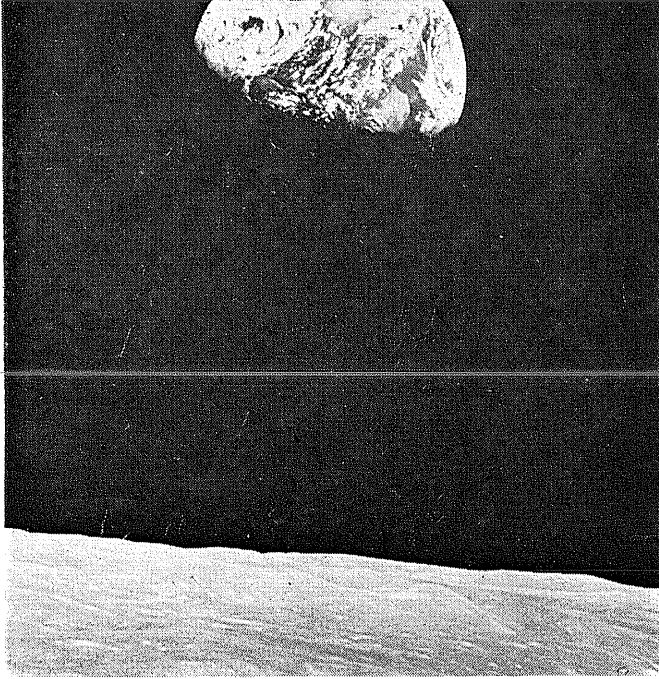
“형제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힘이 넘치는 것 같



나는 중대장을 일으켜 어깨에 얹었습니다.

은 자신을 느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생생한 경험을
 맛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참다운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
 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끝마치고 헬멧을 다시 쓴
 다음 중대장을 일으켜 어깨에 얹어 놓았습니다. 서서
 히 산 위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은
 감사와 격려의 말을 속삭이면서 소리없이 울고 있었
 습니다.”

나는 스튜워드 병장을 꼭 한번 만났다. 함께한 시
 간이 두 시간도 못되었다. 참호 속에서 이 선택된 젊
 은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으로 위대한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의 영혼은 나의 영혼을 어루만
 져 주었다. 나의 신앙은 그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
 모든 인류를 위한 형제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라는
 강한 간증을 듣고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



달 여행과 만민에게 보내는 말씀

지. 호머 더함 박사

아리조나 주립대학 총장

● 1968년 12월 27일 금요일 아침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8호는 인류 최초의 달탐색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앙태평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미공군 소속의 프랭크 보먼 대령, 미해군의 제임스 에이. 로벨 이세 대위, 미공군의 윌리엄 에이. 앤더스 소령은 1968년 12월 24일 달 제도를 열 번이나 선회하였습니다. 플로리다주 케이프 케네디를 떠난 것은 1968년 12월 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1968년 성탄절야는 역사상 새로운 기원을 안겨준 역사적인 날이었으며 세 우주인이 달궤도를 돌면서 지상으로 보낸 성탄절 메시지를 텔레비존의 화면을 통하여 시청한 수 백만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부를 적어 소개하면,

앤더스 소령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해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로벨 대위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보먼 대령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1—10참조)

우주에서 잡은 지구의 모습을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었으며, 보먼 대령이 달을 설명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며, 세 우주인이 번갈아 읽어준 옛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보먼 대령의 작별인사가 있었습니다. “아폴로 8호에 탄 저희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분한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2월 24일 아폴로 8호가 처음으로 달궤도에 진입하고 약 5시간 경과한 후에 보먼 대령은 자신이 독경사로 일하고 있는 텍사스주 리그시 성 크리스토퍼 천주교회에 보내는 기도를 드렸다. “제가 오늘 읽어야 할 차렌테요” 유모어 섞인 투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찌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를 이 기도는 성 크리스토퍼에 모여 있는 동료 신자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달탐색 우주선장인 보먼 대령이 달궤도에서 보낸 이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비록 저희가 잘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시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지하고 연약하나 선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의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기를 바라며 세계 평화의 날을 위하여 저희가 할 바가 무엇인가를 밝히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달 여행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9마일 상공에서 본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면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달에서 지구를 향해 보낼 말씀도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보먼 대령의 기도에 나타난 신앙과 의미로 가득찬 이야기는 그리 혼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평화의 날을 위하여 저희가 할바가 무엇인가를 밝히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음과 권위에 대한 존경

스터링 알. 프로보스트 박사

● 요즈음의 신문, 방송, 텔레비 등은 폭동, 반란, 소요 또는 문란한 법질서를 보도하기에 바쁘다. 이러한 상태가 어느 특정한 연령층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기사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는 추세인양 계속하여 일어나는 폭동이나 소요를 전해 듣는 우리는 다만 놀랄뿐이며 과연 이런 추세를 억제할 수 있거나 있을까 우려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복음은 법의 준수와 이에 따르는 과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법은 영원한 원리이다. 모든 인간은 어떠한 율법이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주님은 “어떠한 당국에나 제각기 한 율법이 있고 율법에는 다 어떠한 한계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교성 88 : 38)

주님은 자신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에게 따를 결과를 아주 명백한 말로 설명하고 계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는 율법으로 보호받으며 율법으로 완전히 되며 성별되나,

율법을 깨뜨리며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며 도리어 제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며, 즐겨 죄 가운데 거하려 하며 온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율법으로나, 자비나, 정의나, 심심판으로 성별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저희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니라.

이 조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교성 88 : 34—35, 38)

바리새인들이 현금 바치는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주님께 달려왔다. 주님은 자기를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의도임을 미리 아셨던지라 그들에게 현금을 우선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다.

“...테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같이 뉘 것이냐?”

“가르되 가이사라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마태 22 : 19—21)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정부, 교회, 고용주, 이웃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다루다 보면 인간 영혼이 자유를 위하여 부단한 투쟁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원의 마음 속에 권위란 그것이 정치 스텐달링 알. 프로보스트 박사는 고등평의회원으로 일한 바 있다.

적인 것이거나 종교적인 것이거나 혼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확신과 지혜를 부각시켜 주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요즈음 세상에서 반역이나 반말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유발한 이유는 일정치가 않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기술적으로 복종치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해진 길에서 이탈한다. 그런가하면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반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질서정연한 사회를 영속시키기 위하여는 일정한 율법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일에는 행동의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기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또는 위태하다고 느낄 때 그는 법이 정의에 입각하여 보호하여줄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1965년 10월 총회에서 휴 비. 부라운 부대관장은 법을 따르고, 지지하는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확인하셨다.

“불행하게도 요즈음에는 자신이 법률의 완전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나라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법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준수하지 않는 법은 사소한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법을 위반한 것은 더 큰 법률을 따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며 정당하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야말로 맹랑한 것이며 더구나 기독교 원리와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위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누구나 자기가 지킬 법과 지키지 않을 법을 구분하여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같이 위험한 이론 위에 질서 있는 사회의 구축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때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법을 위반하면서 기독교의 덕을 간직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무법 상태의 어지러운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정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정부 형태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며 실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이나 반란은 위에 말씀드린 놀라운 사조를 강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뜻에 반대하는, 법의 시행에 반대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썩먹는, 어떠한 형태의 권위든 무조건 반대하는 시위 데모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지 제68권 1965년 12월호 1103페이지)

결론적으로 우리들 모두는 이러한 자유 수호의 방법을 주님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 그 분은 “보라, 나는 저

들에게 시온의 전쟁에 나아가 싸우기를 요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전에 준 계명에 말한 것같이 참으로 내가 약속을 이룰 것임이니, 곧 내가 너희 싸움을 맡아 싸워주리라.”고 약속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악한 사람과 살다보면 그의 희생자가 되거나 그의 종이 됩니다. 이 친구가 유덕한 사람인 경우 그의 유덕에 닮아가게 되며 이것이 불가능한 때라도 적어도 자신의 잘못 하나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고 성 뱃은 말했다.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소유한 율법 중의 하나는 자기와 함께 어울리는 친구나 무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어떤 무리가 악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에 속한 사람은 무리 전체가 목적하는 바를 어떻게든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친구를 통하여 영원히 지속될 습관은 형성된다. 때로는 참다운 교회에로의 귀의에 까지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교양이나 문화에 대하여 자기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를 깨닫고 사회의 향상에 기여할 바가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귀는 친구의 영향에서 비롯한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오늘날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는 아마도 물상식한 행동을 규제할만한 강력한 방법을 만들어 적용하므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인이거나 청소년이거나를 막론하고 “억압받지 않는 자유”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무엇이 자기의 자유를 구성하고 있으며, 무엇이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인간 자신이 그 진가를 약하게 하는 인간의 권리에 관하여 맥케이 대판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자유 의지는 어찌할 수 없는 진보의 원천이다. 그러나 자유 의지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한다. 만일에 인간이 의로울 때 보상을 받고 악할 때 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그가 자유로운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을 전제로 했을 때 성립한다. 언제나 옳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면, 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죄를 범해야만 한다면 첫번 사람에게는 축복을 둘째번 사람에게는 벌을 가한다는 말이 성립하겠는가?

그러므로 인간의 책임은 자유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조건을 우선 생각지 않으면 안된다. 성스러운 율법이나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행동을 낳으며, 진리에 거역하는 행동에는 비참한 결과가 따른다.”(행복한 삶의 비결 154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설정하여 주신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하겠다. 그러나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보라, 내가 법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무릇 매사에 강요당하여 행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종이로라. 따라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다.

추후도 구속하지 않으면서 회원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

이냐는 질문을 받고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옳은 원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을 다스린다.”(밀레니얼 스타 제13권 339페이지) 이러한 개념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이상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자신이 염원하는 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 분이 허락하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 결과로 생기는 책임은 불가피하게 그 당사자에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자신을 철저히 다스릴 수 있어야 하며 칭찬 받을 만한 분야를 택하여 모든 정성을 대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가족은 모든 조직의 기본이 된다. 가족은 사려깊고 충실한 가장과 분별력 있는 아내와 순종과 존경에 젖은 자녀로 이루어진다. 가족 생활의 차원이 높으면 높을 수록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수행에 보다 적극적이다.

말일 성도는 이 순간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그리는 영원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영원을 위한 준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부모는 부모대로 서로 존경하며 교회 안이거나 교회 밖이거나를 막론하고 권위를 존경하는 태도를 출신하여 보여야 한다. 참다운 의미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은 부모가 모든 일을 민주주의적으로 처리하려고 애쓰는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권리 신권 소유자가 가정을 인도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모든 가족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분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의견의 차이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조중한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가정 밖에서나 안에서나 이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한다. 가정도 역시 하나의 단위로 운영된다 할 수 있으니 이런 가정 생활을 통하여 권위나 권능의 목적을 보다 의미있게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권위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다만 자신과 타인의 삶에 뜻있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후 비. 부라운 부대판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앞에는 위대한 사업이, 달성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달성해야 할 목적과 책임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임무는 사람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교회와 국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법을 지키며 시책에 따르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또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법 질서에 반대하는 시위 행진에 참가치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교회나 나라의 지도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에 가입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법률을 존경하는 태도가 없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존경하는 태도 또한 없지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책임은 인간의 마음을 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당한 가치관을 갖도록하며, 개성의 함양에 힘쓰게 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며, 그들이 가진 바 예지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풍요한 삶 240페이지) ○



말 일 성 도 란 ?

선교부장 서 현 보

●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도” 또는 “말일성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을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높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비회원인 친구나 아는 사람이 혹시 우리가 “성도”라는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단어를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여 버리거나 앓을까 걱정을 합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교회의 공식적인 이름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할 것을 계시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교성 115 : 3—4) 이 회복된 교회의 충실한 회원인 우리를 주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때 친히 세우셨던 교회의 회원과 구별하기 위하여 “성도” 또는 “말일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니일 14 : 12, 14. 행 9 : 32, 41, 엠 1 : 1) 이 말은 곧 우리가 침례로 깨끗하게 되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니이 9 : 18)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중에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참다운 의미에서 주를 믿는 사람은 “성도”로 불리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실” 분이 것입니다. (베후 1 : 10)

이와 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불리우는 우리들 자신은 과연 “말일성도”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전 교회 신문에서는 이 문제를 분석, 검토한 내용을 크게 취급한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내용 일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와 같이 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질문을 사전의 정의에 입각하여 본다면 의로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라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의 척도는 단 한가지 있다고 보겠는데 이는 구세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이행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하겠습니까.

다음 단계로 성도가 된다고 하는 말은 곧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회원이거나 다른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척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이 “가식적인 것”은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합니다. 참다운 태도로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가식적인 면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생활 자체가 자기를 증거하고 표현하는 매일입니다. 가식적인 사

람의 특징은 대체로는 진실한 것 같으나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르면 이 진실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합당한 이름을 소유한 교회 회원인 우리들 성도는 절대로 거짓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함께 지닌 사람이거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어서는 안됩니다.

성도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가정에서 또는 놀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간에, 다른말로 바꾸어 한다면 인생의 모든 면에 종교를 그대로 생활하고 있는, 언행이 일치하며, 한결같이 꾸준한 개성의 소유자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같은 이미지를 보여야 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이어서는 안됩니다. 부인과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보다 교회에서 의로워 보여서도 안됩니다. 사업관계, 이웃과의 사귀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형제들이 보는 앞이라 하여 보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복음의 정신은 사랑과 이해의 정신입니다. 말일성도의 가정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정신을 길러주는 곳이라야 합니다

배도의 형태를 든다면 많겠습니까만 그중 가장 나쁜 것은 친절, 정직, 성실을 외면한 변절이라 하겠습니까. 이러한 정상의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일컬어 위선이라 합니다. 예수까지도 이 위선만큼 실랄하게 꾸짖은 예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직책이 무엇이거나, 얼마나 경건하여 보이거나, 설교와 기도에 뛰어나다 하여도, 십일조를 얼마나 정확히 내건, 자주 금식에 익숙하다 하여도 친절하지 못하다면 우리들은 예수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보다는 한층더 심오한 뜻이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내가 베키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그리스도의 참다운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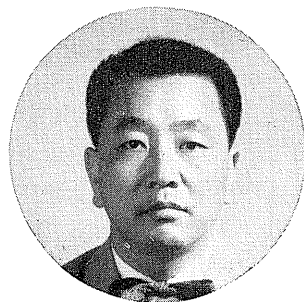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강하게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서 받을 영광을 잃는 것입니다. (교성 76 : 79)

○

주님의 성품



남부지방부장 배 영 천

● 때의 절정의 시대에 주께서 강림하신 이후 주 예수의 신성함을 이해할 수 있던지 그렇지 못하던지간에 세상의 많은 철인, 역사가, 사상가들은 나사렛 예수가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며 가장 고귀한 인격자였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판단할 때 예수의 일생은 확실히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는 가장 낮은 계급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는 재물과 권력도 없이 반대와 오해 그리고 비난으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초커의 예수의 제자로서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현명하고 고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생이었던 그 역시 하늘로부터 받은 것 이외에 받은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의 생애는 모든 역사 보다도 가장 빛나는 승리의 생애였으며, 그가 바로 완전한 인격의 총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문제 많은 이 지구에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완전한 인간을 찾기 위한 표준으로서 그것이 아무리 높고 완전한 것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에게 그 표준을 찾습니다.

역사가가 인간의 위대함을 판단할 때에 인간 스스로가 축적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어느 것을 이뤘는지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들의 가치기준을 살아있는 동안에 공헌한 것,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명력과 정신력의 새로운 선을 따라 얼마나 사고하였는가를 두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첫번째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순수한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는 신이었으나 인간의 속성을 떠나지 못하는 신이었다는 생각으로가 아니라, 전연 결함이 없는 완전한 인간인 예수의 일생 중에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는 여러 사실을 시인하는 방식으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인 생각으로 우리들은 예수를 종교상의 감정과 도덕적인 청렴한 이상에 억지로 결박하여 생각하고므로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은 종종 그의 완전함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단순하면서도 높은 정신과 천부의 그것으로 생각되는 청렴함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자질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한 인간에 관한 우리들의 이상은 예수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는 또한 스스로의 훌륭한 사명에 대하여 조금도 굴하지 않는 힘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는 완전하였습니다. 조용하고, 인내하고, 넘어지지 않고, 힘과 용기와 의지의 완전한 힘을 입증하면서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물의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신성함을 믿지않고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라고만 평가하는 수 많은 우수한 머리를 가진 예수에 관한 권위자들에게 이상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일성도가 생각하는 예수의 인품의 아름다움과 완전은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과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 십자가에 달렸으며, 육체를 얻어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는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셨고 또한 예수를 통하여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때에는 평화 인간에는 선의”라는 훌륭한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갈보리 언덕 위에 흘려졌고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부터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에서 풀려 나올 수 있었고 무덤으로부터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미대륙에서 니파이 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천하 유일의 이름이며 이분으로서만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예수도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성품을 갖고 인간들 사이에서 생활하였으나 이 지상의 인간 중에서 성품의 아름다움, 완전함 또는 행하여진 높은 업적에서 예수와 겨룰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는 인간 이상의 존재이셨습니다. 예수는 구세주셨으며 인류를 구속하신 분이셨으며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혹인이 저술한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책자 중에서 비범하고 위대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다음 세가지 당연한 자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수한 지적인 능력, 둘째는 자기의 목적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충분한 힘, 셋째는 자기의 사고와 모든 행동을 움직이며 인도할 수 있는 윤리적 표준, 이와같은 표준으로서 추리하면 예수에게 근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진리의 말씀

행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으니

십이사도 정원희 리차드 엘. 이반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할까, 또는 될 수 있으면 편한 가운데 사는 것이 좋다고 강조할 때 일이 가져다 주는 축복, 일할 수 있는 특전, 일하는 데서 비롯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며 내부의 불만족은 일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을 장기간하여 육체적인, 정신적인 손실을 가져올 정도라면 곤란하겠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 중에는 지나치게 나태하여 일을 하는 과정에서만 생기는 기술, 능력, 유용성, 확신, 만족 등을 도외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의 기본 율법은 전설적인 일에 종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연, 비, 일광, 씨의 생성 등 경이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창조물을 보십시오. 또한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무한한 마음을 보십시오. 창조의 영광과 위업을 눈여겨 보십시오. 그런 다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나 만족할 만한 일을 하지 못할 때의 침체한 상태를 상상하여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런 존재도 못되는 방법은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다.”라고 미국의 종교인 나다니엘 호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을 때, 봉사하면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나이가 어리거나 성인이거나 막론하고 인간은 좌절감을 맛보고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일할 특전을 부여해 주셨다. 일은 성스러운 선물이다. 지나친 한가는 위험하다. 일을 가까이 하는 습성을 기르다. 이것이 바로 내일이요, 영광이며,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태도를 굳히라.”고 벅케이 대관장님은 복음의 이상 497페이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낙원이라는 영원한 꿈을 간직하고 있다. 찬란한 길이 있고 나무는 훌륭한 음식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는 낙원말이다. 그러나 이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실현 불가능한 꿈이다. 노동은 인간이 허여받은 유산이 아닌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노력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노력할 것일가를 아는 일이다.”라고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은 말했습니다. “기나긴 미래란 길을 바라보고, 우리들 각자가 해야 할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에서 더 좋을게 어디 있겠는가?”라고 스코트랜드의 시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유명한 물문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 키로 싸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560 키로 싸이클의 AFKN에서도 매주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